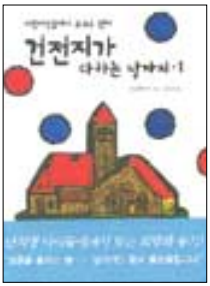




일본 나가노현에 있는 어린이병원. 빨간 고깔모자 지붕이 돋보인다.

아픈만큼 아름다운 어린 천사들

난치병과 싸웠던 아이들의 가슴뭉클한 생명 이야기



건전지가 다하는 날까지
은방울꽃모임 엮음
황소연 옮김
한울림 펴냄
8천5백 원

1998년 6월, 일본 후지미 구청에서는 조출한 장례식이 열렸다. 소아암의 일종인 신경아세포종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다 끝내 세상을 떠난 한 소녀의 장례식이었다. 소녀의 이름은 미야코시 유키나. 세상과 작별하기에는 너무도 어린, 겨우 11살의 나이였다.

그리고 장례식에서는 한 편의 시가 낭독됐다. 유키나가 하늘나라로 떠나기 4개월 전에 쓴 '생명'이란 시였다.

"생명은 굉장히 소중한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건전지 같은 거다. 하지만 건전지는 언젠가는 다 닳아 없어진다. 생명도 언젠가는 닳아 없어진다. 건전지는 바로 새 것으로 갈아 끼우면 되지만, 생명은 쉽게 갈아 끼우지 못한다. ... (중략) ... 그래서 나는 생명이 '나 피곤해 죽겠어' 하고 말할 때까지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아갈 테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유키나. 시에서 썼던 것처럼 생명의 건전지가 다할 때까지, 그래서 '닳아 없어지는' 순간까지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소녀였다. 병마가 덮쳐온 다섯 살 때에는 어린 나이답지 않게 의연했고,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빠진 머리에 "이러다 뽀뽀 대머리되겠다"며 늘 웃음을 지어보이던 천진난만한 '빨간 두건'의 소녀였다. 또 "왜 하필 나야"하며 울부짖는 병실 친구들에게 "조금만 참고 노력하자"고 격려하며 밥을 먹이던 어린 천사였고, 약 먹기 싫다고 떼쓰는 아이에게 약을 먹이던 '꼬마 해결사'였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밤이면 남몰래 울음을 삼키던 평범한 소녀였다.

<건전지가 다하는 날까지>은 이처럼 어린 몸으로 난치병과 싸웠던 유키나를 비롯해 병과 힘겹게 싸운 아이들의 진실한 '생명'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나는 약하지 않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중학교 1학년 이시타



의료사회복지사가 꿈이라는 나가사키 메구미가 만든 물고기 판화.

케이, "괜찮아, 난 괜찮아"하며 자기 주문을 겹겹히 중학교 1학년 험미 히토미, 엄마와 쇼핑하는 것이 꿈이라 말했던 4살의 사토 유키 등이 주인공들이다. 그들의 생(生)에 대한 애착과 투병의지가 천진난만한 언어로 쓰여져 있다.

때문에 이 책을 눈으로 훑고 있다보면 활자가 금세 흐려진다. 눈물이 고이기에 그렇다. 비록 어린이들의 이야기지만, 우리 어른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든다.

특히 두 돌 3개월 만에 소아암 진단을 받고 5살 때 세상을 떠난 사토 유키의 시 '약'에서는 삶의 비장함마저 묻어난다. "맛있는 약은 이 세상에 없나요?"라고 물었던 유키가 "이제부터는 약도 열심히 먹을 테야"라는 유키의 마지막 시구에서는 병마와 정면을 맞서 살아가려는 강한 '생명'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유키의 어머니 사토 히토미 씨가 다섯 살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딸을 그리며 쓴 글에서는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다.

"물약 가루약 가리지 않고 참 많이도 먹었지요. 약을 먹고 바로 토해낸 때도 많았어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도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참 열심히 약을 먹었는데... 그래도 혈압을 낮추는 약은 정말로, 정말로 싫었나 봅니다."

열다섯 해도 다섯 채우지 못한 사카모토 마사미의 '마지막 치료'에서도 '살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어린 아이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이번만 잘 참아내면 / 건강해질 수 있다 / 병이 나을 수 있다 /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 집에도 돌아갈 수 있다 /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은 모두 할 수 있다."

어린이 병원학교에서 나는 아이들의 우정도 눈물겹다. 지금은 병을 이겨내고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는 다무라 유키가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유키나에게 쓴 시를 읽으면 이내 마음이 뭉클해진다.

"유키나는 2년 전부터 줄곧 병원에서 산다 / 매일 치료 때문에 힘들어한다 /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울고 있을 땐 / 자기가 아픈 건 말하지 않아 / 금세 쪼르르 달려가 아픈 친구를 달래준다 / 가아-밤 / 밤에 흘쩍이는 소리가 난다 / 언제나 다른 친구들을 달래주는 유키나가 울면 /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미안해 달래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유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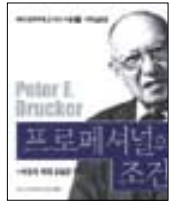
나가노현 어린이 병원학교 야마모토 아츠오 담임은 이 책에서 '살과 죽음을 생각하며 치료에 임하는 아이들에게서 천진난만하면서도 귀여운 어린 수도승의 얼굴이 떠오른다'며 "치료하는 고행 속에서 얻은 '뭔가'를 확실하게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아이들은 분명 아픈 만큼 아름답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생명은 굉장히 소중하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건전지 같은 거다. 하지만 건전지는 언젠가는 다 닳아 없어진다. 생명도 언젠가는 닳아 없어진다. 건전지는 바로 새 것으로 갈아 끼우면 되지만, 생명은 쉽게 갈아 끼우지 못한다. ... (중략) ... 그래서 나는 생명이 '나 피곤해 죽겠어' 하고 말할 때까지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아갈 테다.



1. '빨간 두건'의 천사 미야코시 유키나가 제작한 판화.
2. 하나자토 에미가 중학교 2학년때 어린이병원 학교에서 만든 판화.
3. 병실에서 꿈꿨던 강아지 지넨 스페 모리 아이가 그린 토끼 그림.



프로페셔널의 조건 - 자기실현 편
피터 드러커 지음 | 이재규 옮김 | 청림출판 펴냄 | 1만2천원

"당신은 진정한 프로인가?"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 산 정상에 오르면 곧 내려와야 하는 것처럼 경쟁자들은 선두를 끌어내리려고 언제나 안달이다. 이런 현실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다. 프로의 자세는 바로 이것이다.

현존하는 경영학의 대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인 피터 드러커. '경영의 귀재'로 칭송 받는 피터 드러커가 <프로페셔널의 조건>을 통해 우리에게 개인의 자기실현을 위한 전략을 들려주고 있다.

피터 드러커는 이미 오래 전 자신의 책에서 미래 사회를 지식 사회로 규정하고, 그 사회를 움직일 지식 근로자에게 관심을 가져왔다. 이제는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 요소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주는 시대가 끝났으며, 치열한 경쟁 환경 하에서 기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의 핵심은 그 기업이 고용한 '지식 근로자'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지식 근로자가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성을 소유했느냐'의 여부이다. 즉 지식 사회의 기업은 지식 근로자 개인의 역량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일엔 왜 관심이 없을까

피터 드러커는 지식 근로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에는 '어떻게 자기실현을 할 것인가'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다. 기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 요소인 지식 근로자들이 '스스로 어떻게 자신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설명하고 있다. 지식 근로자 개개인 생산성 높은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답은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잘 나타나 있다. 불교와 기업경영의 가장 큰 공통점 중 하나는 모든 것이 결국은 그 가르침이나 전략을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법구경>에도 나와 있듯이 불교는 많이 아는 것보다는 얼마나 실천하느냐를 훨씬 더 중시하는 종교이다.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지식 근로자의 나아갈 길 역시 결국은 이것과 일맥상통한다.

피터 드러커는 이 책에서 몇 가지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는 일이다. 프로는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 강점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인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식 근로자 개인의 강점에 기초해서 인력 배치를 할 경우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정작 자신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강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일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피터 드러커는 '강점 활용하기' 외에도 '효율적인 시간 관리',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조직 내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프로페셔널의 조건으로 들고 있다.

이제는 지식 근로자 개인을 대변해주는 것이 '소속' 보다는 자신의 '전문 지식 분야'가 됐다. 이러한 지식 사회의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 피터 드러커의 해안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김민규 (선진에셋기어던 부사장)

모든 감정을 탁 봐버려라!

울 초 조계사에서 3개월간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대법회'에서 11명의 선사들이 펼친 법문을 모았다. 선의 본질과 의미, 화두 두는 법, 선 수행의 요체 등을 주제로 선의 정수와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 중앙일보

'마음 공부 제대로 해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공통된 메시지로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추상 같은 엄격함으로 자신들의 수십 년 수행 경험을 청중들에게 전했던 지난봄 조계사 선원장 대법회 법문 내용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 조선일보

지난봄 매주 3천여 명이 넘는 열거로 이어진 선원장 법회의 내용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 매일신문

■ 고우 스님-선의 본질과 의미 ■ 무어 스님-화두 두는 법 ■ 대원 스님-선과 계단 ■ 환주 스님-마음은 무엇인가 ■ 현산 스님-마구고 쉬운 공부기 ■ 영진 스님-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 지환 스님-선 수행의 요체 ■ 혜국 스님-마음은 무엇인가 주인되어 진실되게 사는 법 ■ 현종 스님-한국선의 세계화와 생활선 ■ 도원 스님-선 스스로 만드는 행복 ■ 설경 스님-단박 계림이란 무엇인가 ■ 백법법문 법장 스님-경어·만공 선사사 가르침

禪 너는 누구냐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선원장 스님들의 사자후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한겨레의 책



신국판 / 420쪽 / 차차석 講解 값 10,000원 / 여시아문

주제가 있는 '禪' 이야기

선어삼백칙

(禪語三百則)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자, 이것이 바로 너의 보배이다
일체를 갖추고 있으며, 조금의 흠결이나 부족함이 없다

'선어삼백칙 - 주제가 있는 선 이야기 삼백 가지'는 역대 선지식들의 수행담과 득도를 향한 열정이 담긴 핵심적인 여록을 모은 책이다. 이 책은 '스스로 불성을 지니고 있다', '문득 깨달아 부처가 된다', '한 울도 걸리지 않는다' 등 주제별로 선 수행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 무조건 '어렵다'고만 느껴온 선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Tel:02)737-0695 Fax:02)737-0696 www.yosiamun.com

여시아문